

C_M_016 내왓당 천주또마누라본풀이

1 개요

내왓당 천주또마누라본풀이는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에서 모시던 천자또의 내력을 담은 신화이다.

송당본향당 벽주또와 소천국의 아들인 천자또는 무쇠상자에 담겨 버려지자 용왕황제국 사위가 되었으나, 너무 많이 먹은 탓에 쫓겨나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난리를 평정한 뒤에 제주도로 돌아가 내왓당의 당신이 되었다.

2 내용

소천국은 제주도에서 솟아나고 벽주또는 강남천자국에서 솟아났다. 벽주또는 열다섯이 되니 천기를 보고 배필이 제주도에 있음을 알고 제주도로 가서 소천국을 만나 혼인하였다. 아이가 늘어가니 벽주또는 농사를 짓기를 제안하였다.

소천국은 오봉이굴왓 너른 밭에 가서 밭갈이를 하였다. 벽주또는 국도 아홉 동이, 밥도 아홉 동이 지어 점심을 마련하여 가져다 주니 소천국은 길마로 덮어두고 가라고 하였다. 태선절 중이 지나가다가 밥을 달라고 하자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고 여겨 마음대로 먹고 가라고 하였다. 밭갈이 하다가 점심을 찾아보니 조금도 남은 것이 없었다. 배가 고풀 나머지 밭갈이하던 소를 죽여 구워 먹었으나 배가 차지 않아 이웃 밭의 남의 소까지 잡아 먹고, 배로 쟁기를 밀면서 밭을 갈았다. 소천국을 다시 찾은 벽주또가 그 모습을 보고 사정을 들었다. 벽주또는 남의 소까지 잡아먹은 도둑놈과 함께 살 수 없다며 살림을 가르자고 하였다.

벽주또는 배 속의 아기를 낳아 세 살이 되자 소천국에게 데려다 주었다. 아기는 아비의 수염을 뽑고 가슴팍을 치면서 놀았다. 이에 소천국은 크게 노하여 불효자식이라 하며 아 이를 돌함에 넣어 바다에 띄워 버렸다. 상자는 물 위로 3년, 물 아래로 3년을 떠다니다가 용왕황제국 산호수에 걸렸다. 용왕황제가 세 딸에게 차례로 열라고 하니 막내딸만 열 수 있었다. 상자 속에서 옥 같은 도령이 나와 강남천자국 난리를 막으러 간다고 하였다.

용왕황제국은 천하명장으로 알고 사위를 삼으려고 하였으나 위로 두 딸이 거부하여 막내딸과 혼인시켰다.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니 소도 한 마리, 닭도 한 마리를 한 번에 다 먹는다고 하였다. 사위를 먹이다 보니 워낙 많이 먹어 창고가 모두 비어갔다. 용왕황제는 사위 부부를 쫓아내기로 하였다. 이때 막내딸은 아버지에게 무쇠 쪽박, 무쇠방석,

금동 쪽박과 음 오른 망아지를 내달라고 하였다. 용왕황제는 달라는 대로 내어주고 둘을 돌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버렸다. 상자는 강남천자국에 닿았는데, 마침 병란이 일어난지라 천자또는 망아지를 타고 도원수가 되어 난리를 평정하는 공을 세웠다.

천자또는 큰상을 마다하고 옥황상제에게 축수한 결과 “제주땅 내왓당에 가서 다스리면서 소, 닭 전물제를 받으라.”는 명을 받고 제주도로 돌아가 내왓당의 당신이 되었다.

③ 특징

이달춘 심방이 구연한 자료이다. 같은 심방이 구연한 궤네깃당본풀이와 대체로 유사하다. 강남천자국에서 제주도로 돌아와 좌정하는 과정만 다를 뿐이다.

④ 핵심어

천자또, 소천국, 벽주또, 오봉이굴왓, 산호수, 용왕황제, 막내딸, 강남천자국, 전물제, 무쇠상자, 내왓당

⑤ 원전 서지사항

내왓당 천주또마누라본풀이(현용준·현승환, 《제주도무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⑥ 관련 자료